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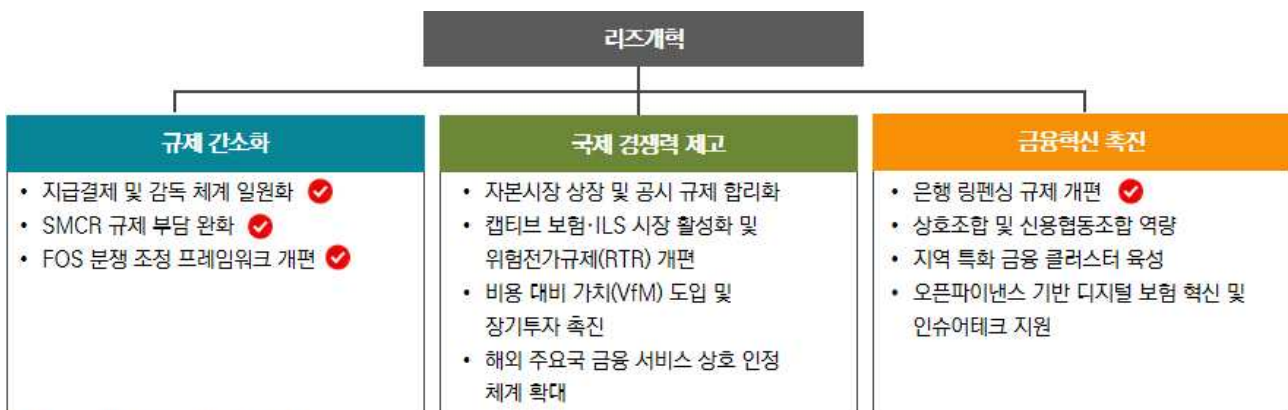
요약

영국은 리즈개혁의 핵심 정책을 반영한 금융서비스 강화 법안을 발표함. 동 법안은 감독체계 통합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여 글로벌 금융허브 위상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. 특히 보험회사의 규제 부담과 분쟁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장기·대체투자 및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통해 보험산업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

○ 영국 정부는 2026년 5월 「금융서비스 강화 법안(Enhancing Financial Services Bill)」을 발표함¹⁾

- 금융서비스 강화 법안은 2025년 발표된 리즈개혁(Leeds Reforms)의 핵심 정책 방향을 법률 및 감독체계 개편으로 구체화하는 것임
 - 리즈개혁은 영국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과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강화를 목표로 규제 간소화, 국제 경쟁력 제고, 금융혁신 촉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
- 동 법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브렉시트 이후 둔화된 영국 금융산업의 성장세와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고 런던 중심의 글로벌 금융 허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금융산업 전략의 일환임
- 기존 Solvency UK 개편이 보험회사 자본 규제 완화와 장기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, 본 법안은 금융산업 전반의 규제체계 효율화와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 제도 개편에 초점을 두고 있음

〈그림 1〉 영국 리즈개혁의 주요 추진 방향 및 입법화 현황



✓ 금융서비스 강화 법안에 반영

자료: GOV UK(2025. 7. 15.), "Mansion House 2025"; KPMG(2025. 7.), "The Leeds Reforms"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함

1) OGL(2026. 5. 13.), "THE KING'S SPEECH 2026"

- 금융서비스 강화 법안은 감독체계 통합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자금 중개 기능과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
 - 지불결제규제청(Payment Systems Regulator; PSR)을 금융감독청(Financial Conduct Authority; FCA) 산하로 통합하고 링펜싱(Ring-fencing) 규제를²⁾ 완화하여 중복 규제와 행정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, 시장 내 자금 공급 기능을 확대하고자 함
 - 또한 고위 경영진 및 인증 제도(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; SMCR)³⁾와 금융옴부즈만서비스(Financial Ombudsman Service; FOS)⁴⁾ 개편을 통해 최고경영진 중심의 책임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 분쟁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계획임

- 이번 SMCR 및 FOS 제도 개편은 보험회사 규제 부담과 분쟁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혁신 환경 조성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
 - SMCR 개편으로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인증·보고·문서화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법규준수 비용이 절감되고 내부 통제 운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
 - FOS 개편으로 보험금 지급 및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처리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인슈어테크 등 새로운 디지털 보험 사업 모델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완화하여 산업 전반의 혁신 성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

- 한편 리즈개혁 기초 아래 영국 재무부(HM Treasury; HMT) 및 금융감독청은 장기투자 확대와 금융혁신 촉진을 목표로 보험산업 관련 감독체계 및 시장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임
 - 영국 연금감독당국(The Pensions Regulator; TPR)과 금융감독청은 확정기여형(DC) 연금 및 생명보험 상품에 대해 비용 대비 가치(Value for Money) 프레임워크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상품 평가 방식을 기존의 수수료 중심에서 순투자수익률 및 장기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임⁵⁾
 - 이를 통해 보험회사와 연기금의 장기·대체투자 확대를 촉진하여 비상장주식, 인프라 및 사모시장 등 실물경제로의 자금 공급이 확대되고 보험회사의 장기 수익 기반이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됨
 - 영국 재무부는 캡티브 보험 제도 도입, 보험연계증권(ILS) 시장 활성화, 위험전가규제(RTR) 개편 등을 통해 글로벌 재보험 자본을 유치하고 런던 보험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⁶⁾
 - 금융감독청은 인슈어테크 및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인가 절차를 디지털화 및 간소화하는 한편, AI·기계학습 등 디지털 기술 테스트를 지원하고 결과 중심의 유연한 규제를 확대하고 있음⁷⁾
 -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오픈 파이낸스 환경에서의 맞춤형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여 온디맨드 보험, 헬스케어 연계 서비스 등 혁신적 디지털 보험상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

2) 링펜싱(Ring-fencing) 규제란 예금·대출 등 소매금융 업무와 투자은행 업무 등 고위험 금융업무를 분리하도록 하는 규제로서 최근 3년간 소매예금 평균 잔액이 £350억 이상인 은행에 적용됨

3) 고위 경영진 및 인증제도(SMCR)는 금융회사 고위 경영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직업윤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

4) 금융옴부즈만서비스(FOS)는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발생하는 분쟁을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분쟁조정 기구임

5) FCA(2026. 1. 8.), "CP26/1: The Value for Money Framework: Response to consultation, further consultation and discussion paper"

6) HM Treasury(2025. 7. 15.), "Captive insurance consultation response"; "Changes to the Risk Transformation Regulations"

7) FCA(2025), "Strategy 2025-2030"